‘광주형 일자리’ 정책 정부 평가 최우수

전남도 우수상 … 순천시·나주시 기초부문 우수상

민선 6기들어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중인 광주시가 정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광주시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남도도 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최 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시상식’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기초부문에서는 순천시·나주시가 각각 우수상을 받았고, 광양시·해남군·고흥군이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광역 시·도(17개) 부문과 기초 시·군·구(226개) 부문을 나눠 각각 지역 일자리 추진 대책을 고용률 등 정량 30점과 자치단체장의 일자리창출 의지 등 정성 70점으로 배점해 실시했다.

광주시는 민선 6기들어 기존 실적위주의 일자리 창출 지표를 내던지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새로운 목표로 정했다.

시는 일자리 창출은 사회 통합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통합위원회 및 노사민정위원회, 청년위원회(청년 일자리 정책 발굴) 등을 구성하고, 기업 등 경제계와 범시민단체와의 수시 소통을 통한 질 높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다.

시는 특히 자동차 생산 기업들에게 노사민정 협의를 통한 연봉 4000만원대의 ‘광주형 일자리’를 제안하고, 신규공장 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시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동력 확보를 위해 일자리 총괄부서인 ‘일자리 창출과’를 ‘일자리 정책관실’로 격상시켰으며, 전국 최초로 사회통합추진단, 청년인재육성과, 자동차산업과 등 일자리 관련 부서를 대거 신설해 최전방에 배치·운영 중이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광주시는 지난 2014년 12월 기준 전국 특·광역시 중 청년 고용률·취업자수 증가 폭 1위를 비롯한 상용 근로자수 6.1%증가 등의 성과를 내 정부 평가에서 최우수상이라는 영예까지 거머쥐었다.

전남도도 민선 6기들어 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는 한편 빛가람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청년인력 양성사업, 취업 연계 사업, 전남형 중소기업인턴 등 자체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빛가람 혁신도시 투자유치를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매년 국비 확보(2015년 71억) 3위를 달성하고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과 중소기업 청년 빈 일자리 해소 시책 및 청년 농업 창업가 양성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광주 유촌·덕흥, 솔머리 선정

광주시는 20일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2015안전마을만들기사업’ 공모에서 서구 유덕동 유촌·덕흥마을과 광산구 어룡동 솔머리마을 등 2곳이 선정돼 국비 7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연재난과 범죄, 사고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기존 안심마을과 방재우수마을을 통합해 국민안전처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전액 국비사업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70개 마을이 신청해 국민안전처 중앙평가단 심사에서 최종 20개 마을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에 자체 심사를 거쳐 2개 마을을 신청했으며, 신청마을 모두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배려 운전 합시다” 광주교통문화혁신과 선진교통공동체 형성을 위한 민관협약식 및 배려운전 실천 선포식이 20일 오후 광주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렸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김해수 광주지검장 등 참석자들이 손 플래카드를 들고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U대회 시민 서포터즈 오늘 발대식

亞문화전당 앞 5·18광장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시민 서포터즈가 21일 발대식을 열고 출범한다.

광주시는 “21일 오후 5시 18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광장에서 열리는 ‘50주년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 광주 U대회 시민서포터즈 발대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시민 서포터즈 2000여명과 대학생 서포터즈 1000여명 등 3000여명이 참석하며 대회 마스코트인 ‘누리비’를 선두로 참가 신청국 152개 국가의 기수단 입장, 서포터즈 대표 2명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시민 서포터즈는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참가 선수단 환영·환송 행사 ▲경기장 응원 활동 ▲지역 문화체험 및 관광·쇼핑 안내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동진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시민 서포터즈는 제2의 선수로 경기 응원과 선수·임원단 안내 등을 돕게 된다”며 “서포터즈와 함께 일반 시민들도 성공 개최를 위한 붐 조성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노무현대통령 서거 6주기 광주·전남 곳곳 추모행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23일)를 맞아 ‘노풍’(盧風)의 진원지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린다.

사단법인 김대중노무현대통령기념공원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추도식을 개최한다.

광주YMCA 무진관에는 추모분향소도 마련돼 22~23일 추모객을 맞는다. 추모사진전과 시화전이 함께 열리고 동서화합 시민공원 조성 서명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23일 광산구 첨단 쌍암공원에서는 추모음악회가 개최된다.

18~21일 금남로, 전남대, 조선대, 푸른길공원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호남KTX 등 노 전 대통령이 펼친 지역 관련 사업을 정리한 영상사진전이 열린다.

21~24일 전남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는 노무현재단전남지역위원회 주최로 다양한 추모 문화행사가 열린다.

행사 기간 추모관이 운영되고 추모 음악제, 글짓기·그림대회가 마련됐다. 23일에는 광주와 순천, 목포에서 출발한 추모객들이 봉하마을을 방문, 고인을 추모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를 떠나며

함정임 칼럼

서울 용산역에서 호남선 KTX를 타고 광주 송정역에 내린 것은 오후 3시 경이었다. 공주, 정읍이라는 지명이 보이는가 싶더니 목적지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채 두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광주행 KTX에 오르면서 가슴이 뛰었다. 십여 년 전, 한국에서 처음 KTX가 개통되었을 때, 부산행 플랫홈으로 뛰어내려가면서 흥분과 설렘으로 전율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난생 처음 파리에서 초고속 열차에 발을 올려놓던 순간, 열차에 실려 쏜살같이 드넓은 구릉과 평원을 달려갈 때 기분좋게 압도당했던 속도감도 이어 떠올랐다.

그날 이후, 나는 수시로 초고속 열차를 탔고, 여러 날 여러 국경을 통과해 다시 파리로 돌아오곤 했다. 나는 천성적으로 지도를 사랑했고, 지도에 별처럼 박혀 있는 이름들을 사랑했고, 지명과 지명을 이어주는 열차를 열렬히 사랑했다. 지도책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행복하게 꿈꿀 수 있었다. 열차는 지도에 새겨져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곳들로 나를 데려다주었다.

지도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글자를 해독하면서부터였다. 놀잇감이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 나는 막둥오라버니의 어깨너머로 문자를 깨우치기도 전에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선과 색에 이끌렸다. 우리는 밤마다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지도책을 펼쳐놓고 지명 찾기에 열중했다. 지도에서 원근법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될 즈음, 나는 지도의 선과 색을 따라 현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열차들이 내 머릿속 상상과 현실의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멀리 또는 가까이, 꿈꾸고 움직일 때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공간은 반드시 시간과 함께한다는 것을, 그것은 다름 아닌 세계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호남선 KTX는 초행이었다. 평소대로라면 나는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자마자, 용산역이 아니라 서울역에서 경부선 KTX를 탔을 것이었다. 부산의 대학에 재직하게 되면서 서울-부산 간 KTX 이동이 생활화되어 있었다.

그날 나는 광주송정역과 광주역을 거쳐 화순 산속에 있는 숙소까지 찾아가야 했다. 다음날부터 부산 문청들과 함께 광주와 광주 인근을 답사할 예정이었다. 공주, 정읍 지나 광주에 이르도록 나는 저녁에 있을 문청들과의 재회에 대해, 다음날 그들과 함께 5·18 민주묘지에 갈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것은 한 달 전부터 꿈꾸어온 일이었다.

부산의 문청들이 내게 찾아와 광주 인근으로 문학기행을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 나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일정표를 들여다 본 뒤, 그들에게 되물었다.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내가 광주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내 물음에 그들은 표적을 빗나간 화살을 바라보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스무살 어름의 그들에게 광주란 역사 교과서 속의 한 페이지 또는 한 단락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내게 광주란 역사이기 전에 여전히 현실이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살아 숨쉬는 현장이었다.

그들과 마주앉아 있는 것이 난해한 과제처럼 여겨졌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누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학도가 광주에 가려거들랑 적어도 지켜야 할 예의로서 한번쯤 되새겨야 할 소설들을 그들에게 내밀었다. 임철우 ‘봄날’에서 박솔뫼 ‘그럼 무얼 부르지’까지.

광주에서 부산에 이르는 길, 며칠 전국을 감행했음에도 한 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매 순간 긴장하고 있던 탓이었다. 버스가 낙동강을 건너면서 부산의 저녁 불빛이 꿈결처럼 시야가득 들어왔다.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내가 서울 용산역에서 광주 송정역에 이르는 호남선 KTX에서 숨 쉬기가 불편했던 연원을 환기했다. 스무살 어름의 문청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인식과 나의 그것이 광주라는 시공간 앞에서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돌아보는 중에 풀기 막막했던 부담감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신기루처럼 가물거리는 불빛 속에 안도의 숨을 쉬었다. 5·18 민주묘지에 섰을 때, 정수리 위로 쏟아지는 햇빛에 맞서 그들과 내가 한순간이나마 온몸으로 간절했다는 것이 선물처럼 여겨졌다. 오월, 광주와 함께 한 하루였다.

〈소설가·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